

*경배와 찬양	입례 / 호흡 있는 모든 만물 /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 주만 바라볼찌라 /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같이
대표기도		안혜진
*성경봉독	출 19:1-6	고현이
말씀	거룩을 쫓는 삶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에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을 쫓는 삶 (출 19:1-6)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딴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3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4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5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6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독특한 언약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자격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지만, 언약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적 의미의 거룩은 어떤 뜻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거룩 (히, 카데쉬)은 구별됨, 구분됨의 의미가 가장 큼니다. 구약시대의 거룩을 보면 시간적 구분, 공간적 구분, 신분적 구분의 의미가 강합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시간적 구분의 예입니다.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히 구분한 것은 공간적 구분의 예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과 이방인, 일반백성과 레위인 혹은 제사장의 구분은 신분적 구분의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거룩이란 “따로 떼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요?** 먼저,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출 19장, 시내산 언약식) 거룩함 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너무 부담스럽게 받기 보다는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시 46:1)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레 11:45, 출 19:5-6)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아내로 부르십니다. 이는 구속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초청이요 축복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은혜 받으면 불경건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존의 거룩의 개념을 깨시고 더욱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행위로써 지키는 것을 깨뜨리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며 공간 구분이 깨졌습니다. 더 이상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용되면서 신분적 분리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은 바로 ‘마음의 법’입니다. (히 8:8, 10)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 마 5-7장)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것, 예수님과 반하는 것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51% 보다는 큰 고려요소(super majorit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결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거룩, 즉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은 매 순간 내 마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예수님과 독백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먼저 **‘성’의 문제는 거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이 감추어진 욕망이며, 잘 제어되지 않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넘어질 경우 죄의식과 수치심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과 여가 이루는 가정 안에서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일관되고 반복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주의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믿음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조금 무너졌었다고 느껴진대도 거룩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시 119:9) 기독교 커플들은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함께 절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시는 청년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번째는 **SNS 중독 문제**입니다. 이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을 유혹해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유튜브 보는 만큼 성경을 보시나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David Zahl은 만약 technology가 여러분을 통제한다면 여러분은 기술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핸드폰과 인터넷이 절대적인 시대에, 주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시대적 흐름을 초월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거룩’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 나누어 봅시다. 거룩이 부담스럽나요, 축복으로 느껴지나요?
2. 일상에서 내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나누어 봅시다.
3. 성의 문제, SNS 중독의 문제, 혹은 다른 건강하지 못한 습관 중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YouTube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

4월 3일 (주일) 청년 예배 후, 교회에서

세례/입교식

- 4월 10일(주일) 예정
- 신청: 3월 27일까지
- 교육: 4월 2일(토) 오후 2~4시, ZOOM
- 문답: 4월 9일(토) 오후 2시, 교회

제직회

제직회

기도모임 안내

금요 청년 기도 모임: 금요일 7시, 청년부 예배실
토요 무릎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당
중보기도회(목요기도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당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첫주제외)
정기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12호

MAR 20
2022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